

## 서울시 패널자료를 활용한 커뮤니티웰빙 개념구조와 측정지표의 적합성 분석\*

서인석\*\*·이승중\*\*\*·기영화\*\*\*\*

본 연구에서는 최근 대두된 '커뮤니티웰빙' 개념과 하위영역, 그리고 지표 간의 적합성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는 '커뮤니티웰빙' 개념이 지역사회에서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 웰빙수준, 지역사회정책 등 다양한 관점들을 포괄하고 있어 개념과 지표간의 적합성 및 타당성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차요인분석을 통해 적합성이 높은 개념 및 지표, 상대적으로 낮은 개념 및 지표를 구분하고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비교검토를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우선 커뮤니티웰빙에 있어서 지방행정서비스는 적합도가 높은 변인이었다. 둘째, 가계소득 및 고용과 같은 경제지표는 여전히 커뮤니티웰빙에 중요한 변수이며, 교육의 여건 역시 사람들이 커뮤니티웰빙의 측정지표로 적합하다고 인지하고 있음을 판단해볼 수 있다. 셋째, 녹지가 매우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커뮤니티웰빙이 지역사회나 거주민의 주변환경이 사람들의 심리나 안정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체모형의 분석결과는 환경영역, 정치·사회관계영역, 사회경제영역 모두가 균등한 설명요소임을 나타내었다. 여전히 국제기구들(OECD, UN 등)이 웰빙을 측정함에 있어 개인의 의료 및 복지서비스와 같은 요소에 편중되어 측정되고 있는 바 향후의 평가지표들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커뮤니티웰빙 지표, 고차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성 측정

### I . 문제의 제기

지역사회는 정체성을 공유하고 상호작용을 지속하는 지역구성원 및 지역조직들의 집합으로써 책임감을 공유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신뢰와 상호작용은 지역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13S1A3A2054622).

\*\* 숭실대학교 SSK 커뮤니티웰빙 전임연구원(inseok800414@naver.com)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slee@snu.ac.kr)

\*\*\*\* 교신저자, 숭실대학교 평생교육학과 교수(key@ssu.ac.kr)

(이승중·기영화·김윤지·김남숙, 2013: 314). 지역사회의 발전은 단순한 양적 성장을 넘어서 삶의 수준, 행복 등의 질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대두된 개념인 커뮤니티웰빙의 경우 지역사회 발전과 상당히 밀접한 논의로 이해할 수 있다. 커뮤니티웰빙은 삶의 질, 지역사회 정책, 지역구성원의 행복 등에 다양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나 여전히 시작단계로 개념정립과 개념 간 논의가 진행 중이다. 나아가 커뮤니티웰빙을 실무적으로 또는 현상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이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즉, 더 많은 논의를 통해 개념 간 중요도의 구분이나, 각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지표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념 및 지표에 대한 상대적 가중치나 개념과 지표의 적합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상대적 가중치에 대한 연구는 개념들 간의 우선순위를 구분함으로써 지방정부가 달성해야 할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구분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개념과 지표의 대응성이나 적절성에 대한 연구는 이론적인 개념구성을 통해 지표들이 구성되었을지라도 현상에서는 해당개념과 지표의 일치가 이론과 달리 나타날 수도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개념과 지표구성에 대한 연구(서재호·김혜정·이승중, 2013)는 수행되었으며, 동시에 지표의 상대적 평가에 대한 연구(이승중·기영화·김윤지·김남숙, 2013) 역시 최근에 다루어졌다. 물론, 이 연구들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검증되어야 하고 다듬어져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념과 지표의 대응성 및 적절성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는 개념을 정립하고 지표를 확정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라 사료된다. 개념이 정립되고 지표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개념과 지표와의 관계성을 검토하고 검증할 때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개념과 지표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승중 외(2013)는 커뮤니티웰빙 영역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하였다. 우선 사회경제영역으로 가계소득, 고용, 평생교육, 여가시설, 질병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환경영역으로 녹지, 교통환경, 대기오염, 에너지보급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치 및 사회관계영역으로 지역참여, 사회적 지원, 지방행정, 안전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개념 및 하위요소가 많은 이유는 커뮤니티웰빙의 개념이 개인단위, 지역사회단위, 지역구성원의 웰빙을 형성하고 전달하는 지역정책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많은 하위요소들과 개념간의 연계는 때로는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게 될 수 있다. 특히, 개념화 단계에 있는 커뮤니티웰빙과 그 지표 간에는 지속적인 타당성 및 적합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만일 개념에 포함되는 하위지표가 개념과 명료하게 연결되지 못한다면 잘못된 측정도구로 인해 ‘오해’의 결과를 양산할 소지도 있다. 또한, 개념화 작업은 객관적인 측정이 병행되어야 일반성 높은 도구로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개념과 지표의 구조적 적합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닌다. 첫째, 커뮤니티웰빙 개념과 지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연구모형을

도출한다. 둘째, 도출된 연구모형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분석을 시도한다. 셋째,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적합성이 높은 수준의 지표와 낮은 수준의 지표를 구분한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검토

### 1. 커뮤니티웰빙 논의의 최근 방향

커뮤니티웰빙 개념은 여전히 학자들에 따라 연구영역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관점을 제시해왔다. 다만, 이와 같은 논점들이 행복·건강·번영한 상태를 의미한다는(Murphy & Kuhn, 2006) 점에는 이견은 없을 것이다(이승종 외, 2013: 318). 즉, 커뮤니티웰빙 개념은 복잡하고 다의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웰빙은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 요소를 포함할 수 있으며, 심리적 차원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또는 그 사회의 참여를 통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심리적 차이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외재적 속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커뮤니티웰빙이 몇 가지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커뮤니티웰빙의 연구들은 커뮤니티웰빙의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크게 2가지로 대별되었는데, 지역사회 웰빙 영역을 구성하고 평가하는 방식(Sirgy & Comwell, 2001; Sirgy et al., 2000)이나 선행연구들의 자료와 관점을 취합하여 새로운 커뮤니티웰빙 영역을 구성하는 방식(Whorton & Moore, 1984; Christakopoulou, Dawson, & Gari, 2001)이다. 중요한 부분은 이 관점들 모두 사회경제영역, 환경영역, 정치영역은 포괄하는 것(Cuthill, 2002)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우선, 사회경제영역은 가장 일반적이고 많은 논의를 이루어온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성장이 과부하 상태를 가져온 20세기 중후반까지 경제적 상태 또는 번영은 한 국가나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동력으로(기영화·김윤지·김남숙, 2013: 2) 인식되어 왔다.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의식주이다. 따라서, 지역 커뮤니티 역시 기본적인 경제수준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경제발전의 패러다임에서 많은 국가들이 경제개발의 실패를 경험하여 극빈국으로 전락하였고, 경제발전에 성공한 개발도상국들 역시 내부적으로 부유층과 빈곤층의 격차가 커지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빈곤해결은 개인 삶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충족임과 동시에 국가, 지역사회를 안정화하고 지역 내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 이는 경제적 차원이 개인 및 커뮤니티 전체를 위한 일반적인 요소임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경제적 부는 개인건강 수준에 대한 투자를 이룰 수 있다. 아울러, 선진국으로도

약은 경제적 여유와 함께 여가생활을 확대하는 유인을 제공하게 된다.

둘째, 환경영역은 다음과 같이 논의될 수 있다. 이승중 외(2013: 319)는 환경영역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통해서 지역구성원의 삶의 질과 신체적·심리적 웰빙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즉, 잘 관리되지 못한 공공시설이나 주변의 더러운 환경은 지역구성원의 만족감을(Hartnagel, 1979; Varady, 1986)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구성원이 바라는 수준(needs)에 제공하고 있는 수준(resources)이 부합하지 못한다면 지역구성원의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은 낮아질 수 있으며, 이는 개인에게 불만을 조성함으로써 개인안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커뮤니티의 물리적 환경은 커뮤니티웰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며, 상시적으로 지역의 물리적 구성 및 환경에 대해 점검하여 구성원들의 선호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정치영역은 다음과 같이 논의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차원은 간접민주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로의 가능성을 열어주게 된다. Christakopoulou et al(2001)은 정치적 커뮤니티는 주민들의 정보수준, 의사결정예의 참여정도를 제시한 바 있다. 커뮤니티단위의 정치적 참여를 통해 자신의 문제와 관련이해관계자들, 또는 공동체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필요사항에 대해 고민함으로써 커뮤니티의 공동된 문제를 도출하거나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서 자발적 협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커뮤니티웰빙은 중앙정부와 같은 집권화된 관료시스템에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업이다. 커뮤니티는 각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과 같은 내적 요소를 포함하고, 내적 요소에 부합하는 답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커뮤니티의 고유한 문제를 보다 적합하게 찾아내고 이에 대한 적실한 대안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이는 정치영역이 관계성을 중시함을 나타내며, White(2008)의 논점과 관련될 수 있다. White(2008)는 커뮤니티웰빙의 요소로서 상관관계요인을 제시한 바 있다(기영화·김승현·김남숙, 2013: 298). 상관관계요인은 사랑과 관심의 긴밀도를 포함한다. 즉, 지역 내에 존재하는 법령 및 지역사회정책(사회복지서비스 포함), 사회적 모임(예: 취미모임) 등을 통한 지역내의 개인적·공식적 관계망을 나타낸다. 사회는 기본적으로 사람들간의 관계성을 가정하고, 관계를 통해 얻게 되는 편익이나 만족감은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평가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역할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소속의식이나 공동체를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형성한다. 지역참여의 관계성에서 형성된 공동체 의식은 구성원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자신감을(이승중 외, 2013: 319) 증진시킬 수 있다.

한편, 지역내의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이익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것이 지역사회정치라고 가정해볼 때 이를 잘 조직하고, 가이드하며, 조율할 수 있는 조정자 내지는 촉매자가 필요하다. 이는 ‘지역커뮤니티가 얼마나 잘 기능하는가, 지역이 얼마나 잘 관리되는가(governing), 지역에서 공공서비스가 얼마나 잘 운영되는가, 그 지역이 얼마나 안전하고 평온하고 가치가 있는가(Chanan,

2002; 서재호·김혜정·이승중, 2012)’ 등을 의미할 수 있다. 지역사회는 구성원, 지역조직, 지방정부가 지역사회 변화 및 발전의 주체들로(이승중 외, 2013: 314) 구성될 수 있으며, 이 중 지방정부는 가장 강한 공식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 다른 행위자들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지방정부는 공공서비스 제공하는 제공자로서, 또한 다른 행위자들을 조정할 수 있는 중심적 행위자로서, 커뮤니티의 비전적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로서 지역정치의 중요한 행위자 또는 매개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커뮤니티웰빙에 대한 상기의 구분은 과거 경제적 요소에 편중되었던 시각에서 개인의 안녕 및 주관적 웰빙에 초점이 맞춰지던 사회복지의 관점들을 넘어서 개인이 포함된 사회물리적 구성을 모두 포괄하려는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국제지표들이 개인수준의 건강지표에 초점이 되어있는 경향과 달리 커뮤니티웰빙의 개념영역을 구분하고 지표들의 균형적 시각을 포함하려는 이승중 외(2012)와 기영화·김승현·김남숙(2013)의 접근방식에 근거하고 있다. 이승중 외(2012)는 커뮤니티웰빙을 공동체 내에 있는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집합적인 이익을 반영하여 집합체 단위의 사회경제적, 환경적, 정치관계로 큰 범주에서 개인단위의 정신적 건강과 치안까지도 포괄하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기영화·김승현·김남숙(2013: 299) 역시 커뮤니티웰빙은 개인 웰빙 실현의 전제조건으로, 공동체 내에서 개인들이 느끼는 살기 좋음, 만족감을 뜻하며, 정치적·경제적·환경적으로 다양한 차원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sup>1)</sup>.

요컨대, 커뮤니티웰빙의 정의는 기관마다 학자마다 다른 관점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지역사회 또는 지역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사회적 활동영역, 공동체와 구성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리적 환경영역, 구성원들의 심리적·정신적 측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관계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티웰빙은 지역공동체(local community)의 경제사회

1) 기영화·김승현·김남숙(2013: 298)은 커뮤니티웰빙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연구자	개념
Ramsey&Smit(2002)	사람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게 하는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
Scottish Development (2007)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번영하는 것
Kusel(1991)	공동체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요소로서 공동체 자신을 유지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Chanan (2002)	지역공동체가 얼마나 잘 기능하는가. 지역이 얼마나 잘 관리 되는가. 지역에서 공공서비스가 얼마나 잘 운영되는가. 그 지역이 얼마나 안전하고 평온하며 가치가 있는가.
Cuthill (2002)	시민과 공동체의 웰빙에 영향을 주는 자연적, 물리적, 재정적, 사회적, 인적 자본
White(2008)	물질적 요인, 상관관계의 요인, 주관적 요인으로 구분, 지역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
Wiseman(2008)	개인의 정신적 기능 증진과 사회통합 역할
Kruger(2010)	안정감과 자부심을 제공하는 것
Christakopoulou et al(2001)	살기 좋은 지역의 요건인 살기 좋은 공간, 사회적 커뮤니티, 경제적 커뮤니티, 정치적 커뮤니티, 개인적 공간 제공, 지리적 부분의 한 부분으로서의 커뮤니티

적 활동영역, 물리적 환경영역, 정치관계영역을 통해 지역구성원의 심리적 안녕감과 주관적 만족을 고양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의에서 커뮤니티웰빙의 영역은 3가지로 구분되어 논의가 될 수 있으며, 이들 각 영역이 균형적으로 충족될 때 커뮤니티웰빙이 바람직하게 구현되었다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영역별 지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커뮤니티웰빙 영역에 대한 측정

커뮤니티웰빙이 ‘공동체 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공동체 영역 내·외부 조건의 합’으로(서재호·김혜정·이승중, 2012: 43) 정의된다고 볼 때 커뮤니티웰빙은 공동체가 바라는 수준에 부합하는 정책 또는 산출물을 배태할 수 있는 지리적 외부환경의 기회와 공동체가 전환시스템으로서의 역량을 갖추어야 하고, 이 전환시스템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로 공동체 구성원과 공동체의 물리적 외부환경이 긍정적 자극을 받아 더 낫은 상태로 변화하는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개인의 웰빙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외적 ‘조건’인 공동체의 집합적 웰빙이 구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커뮤니티웰빙이 개인의 느낌 및 평가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측정은 개인수준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이때 커뮤니티웰빙에 대한 관점은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웰빙조건을 모두 포괄할 필요가 있다. 서재호 외(2012: 49)는 객관적 웰빙과 주관적 인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객관적 웰빙은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문 가운데 경험적으로 관찰가능한 물질적 조건들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 예컨대 기대수명, 소득, 영양상태, 고용, 교육, 민주적 참여들이 이러한 측정부문에 포함된다. 주관적 웰빙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가에 관한 것으로 심리학 연구의 많은 부분들은 주관적 웰빙, 개인적 특징, 감정적 상태, 삶의 단계, 외적 스트레스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Ryan and 떠, 2001). Campbell(1974: 10-11)은 전통적으로 웰빙의 기준으로 수용되었던 삶의 물질적 조건을 넘어서 삶의 질이 궁극적으로 결정되는 느낌과 감정 등 쉽게 측정되지 않는 부분을 보아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는 객관적 및 주관적 관점 모두 웰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며, 통합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통합적 관점은 삶의 질이 최근 강조되고 있는 전세계적 조류 및 경향이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경제적 풍요로움, 쾌적한 거주환경, 주변인들과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유대관계 등 개인과 사회가 갖추어야 할 요건들이 구현되어야 가치지향적 삶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을 지표로서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이승중 외(2013: 323)의 연구

인데, 그는 평가영역으로서 사회경제, 환경, 정치 및 사회관계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지표요인과 지표의 세부내용을 구성하는 <표 1>를 제시하였다.

<표 1> 설문영역 및 지표 내용

평가영역	지표요인	하위지수
사회경제	가계소득	-월평균가구소득 등을 통한 지역의 소득정도 평가 -가구당 월평균소득, 지방세납부액, 주택자가보유율 등으로 구성
	고용	-지역 경제활동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고용률 평가 -고용 및 실업의 정도
	평생교육	-지역 교육수준 평가를 위하여 지표를 구성 -평생학습 참여율, 문화예술활동 참여율 등이 포함
	여가시설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한 커뮤니티웰빙을 평가 -레저시설, 문화기반 시설수 등
	질병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평가 -1인당 의료비, 비만, 흡연, 음주율, 만성질환 등
환경	녹지	-지역주거환경 수준을 평가 -녹지, 소음 등
	교통환경	-지역교통의 편리성, 접근성을 평가 -대중교통 이용률, 접근성 등
	대기오염	-지역환경 오염정도를 평가 -온실가스배출량, 미세먼지, 토양오염도, 쓰레기 배출량 등
	에너지 보급	-에너지수급현황 및 친환경에너지 보급률 -상수도, 도시가스, 석유류, 전기, 천연가스 보급률
정치관계	지역참여	-지역사회교류를 평가 -자원봉사자 참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률 등
	사회적 지원	-지역사회 사회보장서비스, 사회적 지원 등을 평가 -기초생활보장 수급현황, 노인복지 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수 등
	지방행정	-지역사회행정에 대한 평가 -지방공무원 1인당 주민수, 투표율, 민원처리 신속성, 공공기관 청렴도 등
	안전	-지역사회 치안, 안전 등에 대한 평가 -경찰1인당 인구수, 소방관, 구조활동 실적, 범죄 발생률 등

자료: 이승중·기영화·김윤지·김남숙(2013: 323) <표 5>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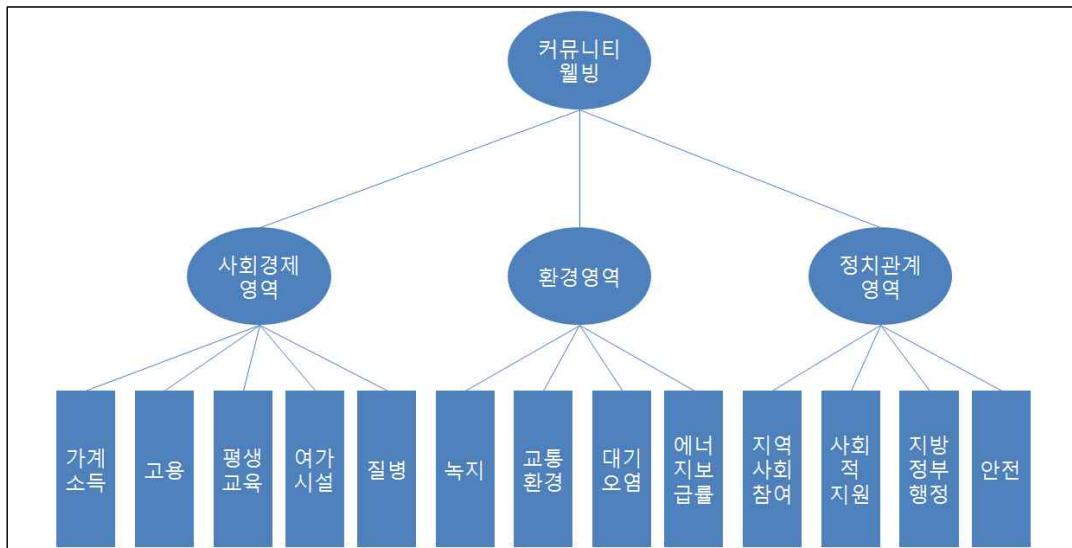
이 연구에서 이승중 외(2013)는 공무원과 전문가를 통해 커뮤니티웰빙 개념과 지표에 대해 상대적 우선순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질병 및 안전 등의 요소가 중요함을 밝혀내었다. 다만, 커뮤니티웰빙이 수요자 중심적 개념으로 인식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지표요인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입장에서 만족할 수 있는 평가지표인지(이승중 외, 2013: 335)에 대해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민들의 인식과 평가를 중심으로 어떤 개념 영역과 어떤 특정지표가 적합한지에 대해 논의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Ⅲ. 연구설계

#### 1. 연구모형

커뮤니티 웰빙은 이론적 검토를 통해 논의한 바와 같이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우선, 사회경제영역으로 경제적인 안녕을 위해 가계소득은 기본적인 요소이며, 가계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고용의 수준이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교육의 여건을 이러한 수준을 유지하는 기틀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삶을 영위해야 하며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삶에 있어서의 여가 및 취미생활이 확보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로, 정치·사회관계영역으로 이것에는 시민이나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커뮤니티 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가 구현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사회참여, 사회적 지원, 지방정부행정, 안전이 구성 지표가 된다.

〈그림 1〉 연구모형



한편, 상기된 기본적인 내용은 지역사회의 기본적인 인프라 수준에서 인식되는 것들이다. 따라서 외적 환경영역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환경영역에는 녹지, 교통환경, 대기오염, 에너지보급률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의 관점을 고려할 때 커뮤니티 웰빙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측정 역시 이 세 차원을 고려하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지표 적합성 및 타당성 검



중은 선행연구 및 향후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하에서는 측정지표 수준에서 구체화하고 논의를 진행한다.

## 2. 분석지표 및 자료

커뮤니티웰빙 지표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AMOS 18.0을 이용하여 고차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변수들 사이에서 상관관계 또는 공분산을 계산하여 표시하고 이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AMOS 분석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가설모형의 적합도 평가척도 중에서 본 연구는 모수추정치를 도출하기 위해서 최대우도추정방법(Maximum Likelihood Method: MLE)을 사용하였다. 분석을 위한 측정지표를 정리하여 요약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측정지표

최상위	상위영역	하위영역	측정 및 적용 문항
커뮤니티 웰빙	사회경제 영역	가계소득	현재의 수입에 대한 만족수준(I2_2) <sup>2)</sup>
		고용	고용의 안정성에 만족수준(A17_2)
			직무내용에 대한 만족수준(A17_3)
			직장에 대한 전반적 만족수준(A17_12)
		평생교육	지속적인 교육활동 수준(H1_8)
		여가시설	문화생활의 수준(G1_2)
	질병	건강상태(E1)	
	환경영역 <sup>3)</sup>	정보인프라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다른 사람과 연락(G3_3)
			인터넷에서 물건 구입(G3_5)
			인터넷으로 각종 증명서 발급(G3_6)
		녹지 및 대기오염	거주지 주변환경의 수준(I2_4)
	근무지(일터) 근무환경(시설, 위생상태)의 수준(A17_4)		
	정치관계 영역 <sup>4)</sup>	지역사회참여	시민단체 참여(직업과 관련 無)(H1_6)
			거주지역모임의 참여정도(H1_9)
			정치단체의 참여정도(H1_10)
		사회적지원	지역사회에서 기회의 평등 수준(I6_15)
			지역사회에서 공정한 보상 수준(I6_16)
		지방정부행정	지방행정서비스의 만족수준(H19_14)
	직업훈련효용성(C1_3)		
			복리후생제도(사회보험 및 부가급부)(A17_8)

출처: 기영화 외(2013) 수정·적용

상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경제영역에는 가계소득, 고용, 평생교육, 여가시설, 질병이 포함되어 있다. 이때 가계소득은 개인의 소득에 대한 만족을 측정지표로 사용하였다. 고용의 경우 안정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직무내용이 본인이 바라는 것일수록 직업에 대한 만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측정지표로 사용하였다. 평생교육의 경우는 지속적인 학술커뮤니티에 참여하고 활동하고 있는지를 측정지표로 사용하였다. 여가시설의 경우 일과 다른 취미생활로 이해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생활 수준을 측정지표로 사용하였다. 질병의 경우 질병을 안고 있다는 것은 건강상태가 좋지 못함을 의미하기에 건강상태를 측정지표로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환경영역에는 정보인프라와 녹지 및 대기오염이 포함되어 있다. 정보인프라 부분에서는 정보와 관련한 물리적 환경으로서 인터넷 사용과 활용이 고려될 수 있다<sup>5)</sup>. 즉, 이메일이나 메신저로(또는 스마트폰) 다른 사람과 연락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은 인터넷을 충실하게 잘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 역시 인터넷의 이용과 활용이 충실함을 나타낸다. 주변환경을 나타내는 녹지 및 대기환경 수준은 거주지의 주변환경과 근무지의 주변환경을 측정변수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치·사회관계영역에서는 지역사회참여, 사회적지원, 지방정부행정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사회참여는 직업과 관련되지 않는 시민단체참여, 거주지지역의 모임(반창회, 부녀회, 지역협의회, 지역방범단체 등), 정치단체의 참여(정치단체에 가입하고 활동정도)를 측정지표로 활용하였다. 사회적지원에는 지역사회의 기회 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과 지역사회의 공정한 보상수준에 대한 인식을 측정지표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지방정부행정은 지방행정서비스의 만족수준과 지방정부 직업훈련의 효용성, 지역사회 복리후생제도를 측정지표로 활용하였다.

2) 측정문항에 대해 부가설명한다면, 가계소득 “현재의 수입에 대한 만족수준”은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로 이루어졌다. 즉, I2-2 현재의 수입에 대한 만족도를 표시한 것이며, 다른 문항도 이와 같이 구성되었다.

I2. 귀하는 다음 각 분야별로 귀하의 생활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시는 편인가요?

내 용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이다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가족 간의 관계	(1)	(2)	(3)	(4)	(5)
2) 현재의 수입	(1)	(2)	(3)	(4)	(5)

3) 교통환경과 에너지보급률의 경우는 물리적으로 측정가능하나, 다른 측정지표가 개인단위의 리커트척도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지표의 일치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4) 안전의 경우 서울시 복지패널에서는 측정지표로 구현되어 있지 않으며, 지역단위 범죄율을 포함시킬 수도 있었지만 교통환경이나 에너지보급률처럼 다른 측정지표와 일치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이 변인 역시 제외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5) 한국의 경우 정보인프라 수준이 세계적이며, 스마트폰의 사용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물리적 환경으로써 인터넷 인프라는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변수로 차용하였다.

〈표 3〉 응답자의 통계적 특성

인적요인	구성요소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2870	45.5
	여성	3434	54.5
연령	18세 미만	291	4.6
	18-29세	886	14.1
	30대	1176	18.7
	40대	1178	18.7
	50대	911	14.5
	60대 이상	1862	29.5
학력	고등학교 이하	3571	56.6
	전문대	468	7.4
	4년제 대학교	2003	31.8
	대학원 이상	262	4.2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363	5.8
	비수급가구	5941	94.2
개인소득 기준 중위소득 <sup>6)</sup>	비취업자	3683	58.4
	무급가족종사자	61	1.0
	중위소득 50% 이하	653	10.4
	중위소득 51-150% 이하	1326	21.0
	중위소득 151% 이상	577	9.2
	모름/무응답	4	0.1

본 연구의 자료는 서울시 복지패널 자료 중 2010년 가구원을 기반으로 설문조사를 기본으로 하였다. <표 3>는 서울시 복지패널 2010년 응답자의 통계적 특성을 나타낸다. 우선, 성별의 경우 남성이 2870명으로 45.5%의 비율을, 여성이 3434명으로 54.5%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성별의 비중은 균형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둘째, 연령의 경우 18세 미만이 291명으로 4.6%를, 18-29세가 886명으로 14.1%를, 30대가 1176명으로 18.7%를, 40대가 1178명으로 18.7%를, 50대가 911명으로, 14.5%를, 60대 이상이 1862명으로 29.5%를 나타내고 있었다. 연령 역시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조사된 것으로 이해된다. 셋째, 학력의 경우 고등학교 이하가 3571명으로 56.6%를, 전문대가 468명으로

6) 비취업자의 분포가 58.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경우 비취업자에 대해 소득만족도를 물어본 것은 대상이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커뮤니티에서는 비취업자가 존재하며, 이 비취업자의 경우도 실직을 하였거나, 아르바이트와 같은 비정규직의 형태에 있어 취업자로 구분하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다. 즉, 과거의 경험과 비정규직 상황 등 역시 본인이 지역사회에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이며, 이것이 충분한지에 대해 스스로가 판단해볼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도시들이 취업자와 비취업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취업자를 포함하는 설문은 더 절적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러한 논리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7.4%를, 4년제 대학교가 2003명으로 31.8%를, 대학원 이상이 262명으로 4.2%의 비중을 나타내었다. 고졸이하의 인원이 상당히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넷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경우 수급가구는 363명으로 5.8%를, 비수급가구는 5941명으로 94.2%를 나타내고 있어 대상자들은 대부분은 비수급가구였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비취업자가 3683명으로 58.4%를 차지해 응답자의 다수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무급가족종사자가 61명으로 1%, 중위소득 50%이하가 653명으로 10.4%를, 중위소득 51-150% 이하가 1326명으로 21%를, 중위소득 151%이상이 577명으로 9.2%를, 모름/무응답이 4명으로 0.1%를 나타내고 있었다. 한편, 응답자의 총수는 6304개로 자료분석을 위한 자료는 충실하게 확보된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었다.

### 3. 연구방법: 확인적 요인분석

연구방법으로는 확인적 요인분석, 고차요인분석 등의 통계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측정지표들에 대한 타당도 분석을 위해서는 단일차원의 각 구성개념의 내용타당성(content validity), 구성개념타당성(construct validity), 기준타당성 검증을 실시하고자 한다. 내용타당성은 측정지표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대표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측정도구의 대표성을 의미한다. 구성개념타당성은 연구에 사용된 이론적 구성개념과 이를 측정하는 측정도구들 간의 일치 정도를 의미한다(이홍재·차용진, 2008). 본 연구에서는 구성개념의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 검증을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각 구성개념의 단일차원에 대한 구성개념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공분산행렬(covariance matrix)을 사용하여 각 구성개념의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을 검증하였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구성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개별 측정지표 구성의 최적 상태를 도출하기 위한 평가기준으로는  $\chi^2$ 통계량,  $\chi^2$ 에 대한 p-값, GFI(goodness of fit index), RMR(root mean square residual),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NNFI(non-normed fit index), NFI(normed for index),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같은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기준타당성은 하나의 속성이나 개념의 상태에 대한 측정이 미래시점에 있어서의 다른 속성이나 개념의 상태변화를 예측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기준타당성은 3개 구성요인과의 연관성을 검정하는 것이다. 이는 상관관계분석 결과가 유의한 경우 기준타당성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sup>7)</sup>.

7) 본 연구에서는 이홍재·차용진(2008)이 사용한 방식처럼 측정지표들의 산술평균값을 활용해서 구성개념 간 상관관계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한편, 고차요인분석은 2차요인 이상의 요인들로 이루어진 모형에서 적용되는 방식이다(배병렬, 2007: 84-85). 2차 요인 구조로 구성된 연구 모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연구 모형을 단일 차원 구조로 변환하여 측정 항목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평가해야 한다(김종기 외, 2011: 37). 이후 평가된 1차요인들의 측정값을 2차요인의 측정지표로 사용한다. Amos 분석 도구를 활용한 본 연구에서는 1차요인의 요인적재량이 2차요인의 측정지표로 사용되며(Wilson et al., 2007), 2차 요인 구조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평가 한 후 최종적으로 모형의 적합도와 구성 개념 간 경로를 분석하게 된다. 만일 3차 요인 구조 이상의 방식이라면 동일한 방식으로 2차 요인의 요인적재량이 3차요인의 측정지표로 활용되게 된다.

## IV. 분석결과 논의

### 1.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가 각 요인을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개념 신뢰도와 분산추출지수를 활용하였다<sup>8)</sup>. <표 4>과 같이 모든 영역의 개념신뢰도가 0.58에서 0.76까지 그리고 분산추출지수가 0.26에서 0.47로 나타났다.

<표 4>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개념 신뢰도와 분산추출지수<sup>9)</sup>

요인	관측변수	표준화 회귀계수	오차항 분산치	개념 신뢰도	분산 추출지수
사회경제 영역	현재의 수입에 대한 만족수준(I2_2)	0.213	0.955	0.692	0.335
	고용의 안정성에 만족수준(A17_2)	0.735	0.460		
	직무내용에 대한 만족수준(A17_3)	0.832	0.308		
	직장에 대한 전반적 만족수준(A17_12)	0.86	0.260		
	지속적인 교육활동 수준(H1_8)	0.13	0.983		

8)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와 분산추출지수(Variance extracted)는 잠재요인과 측정변수 간의 회귀계수와 분산을 활용하여 개념타당성과 수렴타당성을 살펴볼 수 있어 관계성의 연구에 중요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김계수, 2007: 370).

9) 이론적으로 개념신뢰도는 0.7 이상, 분산 추출지수(Variance Extracted)는 0.5 이상이면 측정모형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김계수, 2007: 371). 본 연구에서는 산출된 관측변수의 표준화 회귀계수와 각 관측변수에 포함된 오차항을 토대로 개념신뢰도와 분산추출지수를 구하였다. 여기서 개념신뢰도와 분산추출지수의 산출공식은  $\frac{(\sum \text{표준화 회귀계수})^2}{[(\sum \text{표준화 회귀계수})^2 + \text{측정변수의 오차합}]}$  과  $\frac{(\sum \text{표준화 회귀계수}^2)}{[(\sum \text{표준화 회귀계수}^2) + \text{측정변수의 오차합}]}$  이다.

	문화생활의 수준(G1_2)	0.161	0.974		
	건강상태(E1)	0.107	0.989		
환경영역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다른 사람과 연락(G3_3)	0.877	0.231	0.764	0.475
	인터넷에서 물건 구입(G3_5)	0.896	0.197		
	인터넷으로 각종 증명서 발급(G3_6)	0.876	0.233		
	거주지 주변환경의 수준(I2_4)	0.109	0.988		
	근무지(일터) 근무환경(시설, 위생상태)의 수준(A17_4)	0.159	0.975		
	시민단체 참여(직업과 관련 無)(H1_6)	0.752	0.434		
정치관계 영역	거주지역모임의 참여정도(H1_9)	0.786	0.382		
	정치단체의 참여정도(H1_10)	0.949	0.099		
	지역사회에서 기회의 평등 수준(I7_15)	0.087	0.992		
	지역사회에서 공정한 보상 수준(I7_16)	0.075	0.994		
	지방행정서비스의 만족수준(H19_14)	0.101	0.990		
	직업훈련효용성(C1_3)	0.022	1.000		
	복리후생제도(사회보험 및 부가급부)(A17_8)	0.072	0.995		

이와 같은 결과는 신뢰도 수준이 낮은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즉, 개념신뢰도가 0.7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분산추출지수도 0.5수준에 이르지 못하였기에 신뢰도가 높지는 않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가 커뮤니티웰빙에 기초하여 설계한 측정도구를 사용한 것이 아니기에 신뢰도가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보다 개념을 잘 설명하고 측정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측정방법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연구에 있어 통계적 수치에 대한 정밀함과 엄격함이 중요할 수도 있겠으나, 사회과학연구의 이론 및 과정에 근거한 개념들을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확고하게 배격하는 것이(김계수, 2007: 108)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표 5〉 상관계수와 분산추출지수

	사회경제영역	환경영역	정치관계영역
사회경제영역	0.334*		
환경영역	0.025 (0.157)	0.345*	
정치관계영역	0.011 (0.106)	0.001 (-0.024)	0.253*

\* =분산추출지수; 한 셀에서 ( )=r을 의미하며, 셀 내에서 ( ) 위의 값은  $r^2$ 을 의미

다음으로 판별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검토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상관계수와 분산추출지수를 비교하였다. 각 요인을 통해 도출된 분산추출지수가 각 요인의 상관계수의 제곱, 즉 결정계수( $r^2$ ) 보다 크면 두 요인 사이에는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김계수, 2007:

372-373). 상기된 <표 5>을 고려할 때 각 요인의 분산추출지수값 모두가 각 요인의 상관계수의 제곱 보다 크다는 측면에서 판별타당성 역시 확보되었다.

## 2. 모형 적합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티웰빙의 이론적 논거에 기초하여 세 가지 영역이 커뮤니티웰빙에 적합한 지 분석하기 위해 고차요인분석(higer order factor anaqlysis)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20개의 측정지표를 설명하는 사회경제, 환경, 정치관계의 3개의 구성요인의 1차 요인모형, 3개의 구성개념을 설명하는 고차원요인(커뮤니티웰빙)의 2차 요인모형으로 구성되었다. <표 6>는 각 개념영역들의 모형적합도 결과이다<sup>10)</sup>. 사회경제영역, 환경영역, 정치관계영역 개별 측정변수들의 모형적합도는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6> 세 가지 개념의 모형적합도 결과

개념영역	$\chi^2$	D.F	Sig.	CFI	GFI	AGFI	NFI	IFI	RMSEA	RMR	AIC
사회경제	498.623	11	0.000	0.952	0.978	0.945	0.952	0.953	0.084	0.068	532
환경	162.252	5	0.000	0.988	0.990	0.970	0.988	0.988	0.071	0.015	182
정치관계	226.159	19	0.000	0.985	0.991	0.983	0.984	0.985	0.042	0.023	260

각 개념들이 모형적합도를 충족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 개념에 측정변수들이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사회경제영역에 포함된 측정변수 간 부합정도를 나타내는 결과가 <표 6>이다. 표준화 계수가 0.5이상을 나타내는 것은 고용의 안정성, 직무내용, 직장에 대한 전반적 만족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3가지 변수는 사회경제영역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다른 측정변수에 비해 잘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0.1이하로 나타난 건강상태의 경우는 사회경제영역의 개념으로 포함되기에는 상대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10) 선행연구들에서(이배영 외, 2009; 유소영 외, 2010) 주요한 적합성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GFI, AGFI, NFI, TLI, RMR, RMSEA에 기초해 기초모형의 적합도 평가를 하였다. GFI, AGFI, NFI, TLI는 0.8에서 0.9 이상이고, RMR와 RMSEA는 0.05에서 0.08 이하면 좋은 모형으로 평가된다(이배영 외, 2009).

〈표 7〉 사회경제영역 개념과 측정지표 간 유의성 검증

측정지표	방향	개념	표준화	비표준화	S.E.	C.R.	P
현재의 수입에 대한 만족수준(I2_2)	←	사회경제	.204	1.000			
고용의 안정성에 만족수준(A17_2)	←	사회경제	.736	1.476	.098	15.059	***
직무내용에 대한 만족수준(A17_3)	←	사회경제	.836	1.483	.098	15.170	***
직장에 대한 전반적 만족수준(A17_12)	←	사회경제	.861	1.490	.098	15.182	***
지속적인 교육활동 수준(H1_8)	←	사회경제	.108	.305	.043	7.091	***
문화생활의 수준(G1_2)	←	사회경제	.143	.365	.042	8.758	***
건강상태(E1)	←	사회경제	.090	.350	.057	6.127	***

다음으로 환경영역에 포함된 측정변수 간 부합정도를 나타내는 결과가 <표 8>이다. 인터넷으로 각종 증명서 발급, 인터넷에서 물건 구입,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다른 사람과 연락의 측정변수의 경우 모두 표준화 계수가 0.8이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에 비해 다른 두 변수는 모두 0.2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환경영역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5가지 측정변수 중에서 3가지 변수가 사회경제 영역의 개념에 대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8〉 환경영역

측정지표	방향	개념	표준화	비표준화	S.E.	C.R.	P
근무지(일터) 근무환경(시설, 위생상태)의 수준(A17_4)	←	환경	.148	1.000			
거주지 주변환경의 수준(I2_4)	←	환경	.106	1.167	.176	6.614	***
인터넷으로 각종 증명서 발급(G3_6)	←	환경	.876	11.747	1.036	11.333	***
인터넷에서 물건 구입(G3_5)	←	환경	.897	11.381	1.004	11.339	***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다른 사람과 연락(G3_3)	←	환경	.876	10.505	.927	11.333	***

마지막으로, <표 9>는 정치관계영역에 포함된 측정변수 간 부합정도를 나타내는 결과이다. 총 8개의 변수 중에서 3개의 변수는 매우 높은 표준화계수를 나타내고 있었으며(정치단체의 참여정도, 거주지역모형의 참여정도, 시민단체 참여), 이외의 5가지 측정변수의 표준화계수는 0.1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사회관계영역의 개념에서는 특히 잘 부합하는 측정변수와 그렇지 않은 변수가 상당히 극명하게 나누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물론, 이와 같은 각각 측정결과들이 전체 모형에서 변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3가지 개념을 포함한 고차요인분석결과를 통해 개념과 측정지표 간 부합정도를 비교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표 9〉 정치·사회관계영역 개념과 측정지표 간 유의성 검증

측정지표	방향	개념	표준화	비표준화	S.E.	C.R.	P
복리후생제도(사회보험 및 부가급부)(A17_8)	←	정치_사회관계	.069	1.000			
직업훈련효용성(C1_3)	←	정치_사회관계	.021	.042	.027	1.566	.117
지방행정서비스의 만족수준(H19_14)	←	정치_사회관계	.099	1.243	.287	4.333	***
지역사회에서 공정한 보상 수준(I7_16)	←	정치_사회관계	.069	.915	.245	3.733	***
지역사회에서 기회의 평등 수준(I7_15)	←	정치_사회관계	.081	1.060	.263	4.022	***
정치단체의 참여정도(H1_10)	←	정치_사회관계	.954	10.255	1.951	5.257	***
거주지역모임의 참여정도(H1_9)	←	정치_사회관계	.782	10.223	1.945	5.255	***
시민단체 참여(직업과 관련無)(H1_6)	←	정치_사회관계	.749	9.223	1.756	5.253	***

### 3. 커뮤니티웰빙 개념 적합도 분석: 고차요인분석

각 개념들과 측정변수와의 적합성(구성개념의 타당성)에 기초한 전체모형 결과는 <그림 2>과 같다. 이 모형은 세 가지 개념인 사회경제영역, 환경영역, 정치관계영역이 커뮤니티웰빙의 구성요소로서 얼마나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절차가 된다. 공분산행렬을 활용하여 분석한 측정지표와 구성요인 간의 고차요인분석결과의 모형적합도는 <표 10>와 같다. 모형을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형검증한 결과는 기초모형에 나타난 것과 같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의 회귀계수는 타당성을 부여받기 어렵고, 이는 개념과 측정변수 간의 적합성에 대한 통계결과가 무의미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sup>11)</sup>.

〈표 10〉 커뮤니티웰빙 모형의 고차요인분석 모형적합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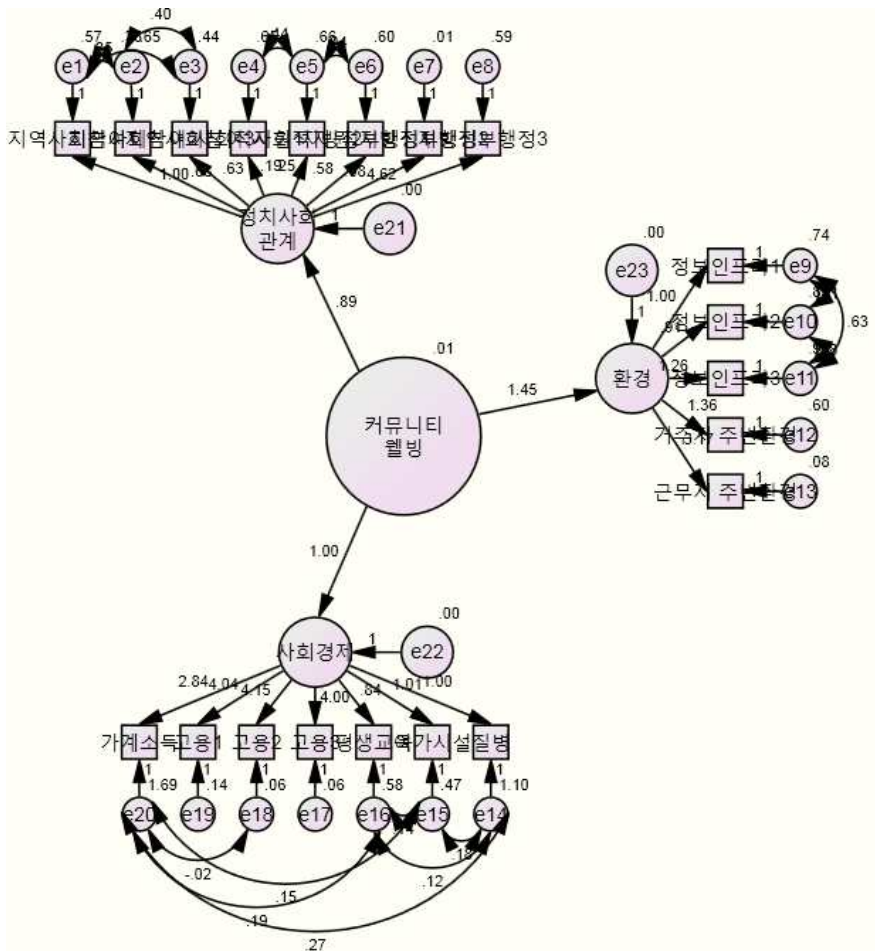
모형	$\chi^2$	D.F	Sig.	CFI	GFI	AGFI	NFI	IFI	RMSEA	RMR	AIC
기초	35454.967	170	0.000	0.312	0.619	0.529	0.312	0.313	0.181	0.116	35534
수정	7623.926	152	0.000	0.855	0.915	0.883	0.853	0.855	0.088	0.064	7692

이에 본 연구는 초기 모형을 수정하여 모형적합도가 높은 수준 또는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변환

11) 초기 모형적합도가 낮은 이유는 각 구성개념이 여전히 독립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고, 선행연구들에서 개념화하고 측정변수화하여 일관성있게 구축·고안된 측정도구가 아닌 상황에서 서울시복지패널 측정항목을 통해 유사측정도구를 사용함에 의해 나타난 결과라 일수도 있다.

한 다음 이후 측정변수와 개념들 간의 구성관계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수정모형에서는 GFI, RMR(0.8미만)은 모형 기준치를 부합하고 있었으며, 이에 반해 CFI(0.9이상), AGFI(0.9이상), NFI(0.9이상), IFI(0.9이상), RMSEA(0.8이하)가 기준치를 넘어서지는 않았지만, 이들 역시 기준치에 근접하고 있었다. 특히 기초모형의 수준에서 수정모형의 변화는 매우 크게 이루어졌다. 즉, 분석모형이 적용가능한 수준으로 변화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림 2> 커뮤니티웰빙 수정모형



상기의 모형적합도에 기초하여 커뮤니티웰빙 모형의 개념과 측정지표 부합정도를 나타내는 결과가 <표 11>이다. 우선 정치관계영역, 환경영역, 사회경제영역이 각각 커뮤니티웰빙 개념에 부여하는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이때 표준화 계수는 정치관계영역이 0.813, 환경영역이

1.061, 사회경제영역이 0.932로 도출되었다. 이는 세 가지 영역은 상위 구성개념인 커뮤니티웰빙을 대체로 균등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커뮤니티웰빙의 하위요소로서 정치 및 사회관계영역, 환경영역, 사회경제영역은 이 개념을 설명하는데 매우 적합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개념의 적절성과 적합성에도 불구하고 하위개념의 측정에 그림에도 불구하고 하위영역과 측정지표의 부합도에 있어서는 하위요소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측정변수들의 회귀계수가 가장 높았던 약 0.8에 이르는 변수는 총 4개로 확인되었는데 이 중 3개의 변수가 사회경제영역에 포함되어 있었다. 즉 전체모형을 기준으로 볼 때 사회경제영역은 다른 하위영역에 비해 잘 측정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각 변수의 평균회귀계수는 0.428로 비교적 높은 적재치를 보여주고 있다.

〈표 11〉 커뮤니티웰빙 개념, 하위영역, 측정지표 간 경로 유의성 검증

개념	방향	측정지표	차수	표준화	비표준화	S.E.	C.R.	P
커뮤니티웰빙	→	정치_관계	2차	0.813	0.894	0.167	5.337	***
	→	환경	2차	1.061	1.451	0.246	5.896	***
	→	사회경제	2차	0.932	1			
정치관계	→	시민단체 참여 (직업과 관련 無)(H1_6)	1차	0.133	1			
	→	거주지역모임의 참여정도(H1_9)	1차	0.085	0.68	0.103	6.592	***
	→	정치단체의 참여정도(H1_10)	1차	0.095	0.625	0.073	8.59	***
	→	지역사회에서 기회의 평등 수준(I7_15)	1차	0.024	0.191	0.128	1.492	0.136
	→	지역사회에서 공정한 보상 수준(I7_16)	1차	0.031	0.25	0.131	1.916	0.055
	→	지방행정서비스의 만족수준(H19_14)	1차	0.076	0.579	0.139	4.172	***
	→	직업훈련효용성(C1_3)	1차	0.069	0.082	0.021	3.866	***
사회경제	→	복지후생제도(A17_8)	1차	0.519	4.617	0.577	8	***
	→	건강상태(E1)	1차	0.094	1			
	→	문화생활의 수준(G1_2)	1차	0.145	1.012	0.149	6.791	***
	→	지속적인 교육활동 수준(H1_8)	1차	0.108	0.836	0.144	5.791	***
	→	직장에 대한 전반적 만족수준(A17_12)	1차	0.843	4.001	0.567	7.059	***
	→	직무내용에 대한 만족수준(A17_3)	1차	0.853	4.155	0.589	7.059	***
	→	고용의 안정성에 만족수준(A17_2)	1차	0.734	4.041	0.574	7.045	***
환경	→	현재의 수입에 대한 만족수준(I2_2)	1차	0.211	2.842	0.408	6.973	***
	→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다른 사람과 연락 (G3_3)	1차	0.145	1			
	→	인터넷에서 물건 구입(G3_5)	1차	0.125	0.912	0.061	15.067	***
	→	인터넷으로 각종 증명서 발급(G3_6)	1차	0.163	1.259	0.075	16.672	***
	→	거주지 주변환경의 수준(I2_4)	1차	0.216	1.364	0.149	9.168	***
	→	근무지(일터) 근무환경(시설, 위생상태)의 수준(A17_4)	1차	.814	3.268	.309	10.574	***

환경영역도 측정변수가 사회경제영역에 비해 낮으나 정치·사회환경영역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다. 근무지(일터)의 위생수준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낮은 회귀계수를 보였고 사회경제영역에 비해 낮은 것은 확인하였을지라도 회귀계수가 0.1미만의 측정변수는 없었다. 개별모형에서는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다른 사람과 연락’, ‘인터넷에서 물건 구입’, ‘인터넷으로 각종 증명서 발급’의 변수가 높은 표준화계수를 보였지만, 커뮤니티웰빙의 고차요인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이와 반대로 근무지 근무환경이 더 적합도가 높았다. 즉, 개별요인에서의 적합도 부여정도와 상위개념으로 모형화한 결과는 매우 달라질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며, 다른 영역(요인)과의 부합정도로 이러한 수치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커뮤니티웰빙 개념에서 환경에는 특히 정보관련 인프라(ICT) 보다는 생활환경의 수준(거주지 또는 근무지)이 더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변수인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상기된 두 영역과 달리 정치·사회관계영역의 측정변수들은 개념에 잘 부합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장 높은 적재치를 보여준 변수는 복리후생제도로 이것이 커뮤니티웰빙의 정치·사회관계영역에 적합하게 부합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수의 표준화 회귀계수는 0.409로 0.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영역에서는 0.8이상의 변수들이 도출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시민단체 참여(0.109)를 제외하면 이외의 6개 변수들은 모두 0.1미만의 표준화 계수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 측정변수들이 커뮤니티웰빙의 정치·사회관계영역을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특히, 지방정부행정과 관련된 변인을 제외하면 지역사회참여, 사회적지원은 매우 적합도가 낮았다. 이론적으로, 커뮤니티 단위에서 사회적 자원을 나타내줄 수 있는 지역사회참여와 같은 변수가 측정에서 잘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은 의아하다. 물론, 구조화된 측정항목이 아니었으며, 커뮤니티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범위(예: 자치구 단위)에서 다루어지지 않았기에 이 변수가 잘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추가검증이 필요하다. 게다가 정치·사회관계영역에 대한 개별측정에서는 시민단체의 참여, 거주지역모임에의 참여, 정치단체의 참여가 더 높은 적합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환경영역에서와 같이 커뮤니티웰빙의 하위요소로 구성했을 때 하위영역에의 부합도가 높은 측정변수가 변화하였다. 그렇지만, 분명한 점은 정치·사회관계영역에서 ‘지방정부행정’이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정책적·제도적 수행 및 지원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 4. 논의의 종합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티웰빙의 세 가지 영역과 그 세 가지 영역 각각에 포함된 개별지표간의 관련성 및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즉, 하위영역 또는 하위개념에 포함된 측정변

수가 상위개념에 잘 부합되는지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대상이 된다.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역사회참여는 정치·사회관계영역의 하위요소로서 정치관계영역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는 높은 구성도를 보이고 있었지만, 커뮤니티웰빙으로 통합되었을 경우에는 부합도가 낮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커뮤니티웰빙이라는 고차요인을 제외하고 상위영역의 개념에는 높은 적재치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재검증을 수행한다면 충분히 활용가능한 변수라고 판단된다. 사회적 지원의 경우 이론적으로 지역사회 자체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의 수준이나 공정함에 따라 지역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몰입과 같은 심리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그것이 사회적 관계성을 강화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지만, 본 연구결과에서는 개별모형과 전체모형 모두에서 사회적 지원 변수들은 설명의 부분이 높지 않았다. 만일 이 이론적 변수가 중요하다면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 12〉 영역별 측정결과와 전체 결과의 비교

상위영역	하위영역	측정 및 적용문항	표준화	
			개별	전체
정치· 사회관계	지역사회참여	시민단체 참여 (직업과 관련 無)(H1_6)	.749	.109
		거주지역모임의 참여정도(H1_9)	.782	.070
		정치단체의 참여정도(H1_10)	.954	.072
	사회적 지원	지역사회에서 기회의 평등 수준(I7_15)	.081	-
		지역사회에서 공정한 보상 수준(I7_16)	.069	.024
	지방정부행정	지방행정서비스의 만족수준(H19_14)	.099	.052
		직업훈련효용성(C1_3)	.021	.058
복리후생제도 (사회보험 및 부가급부)(A17_8)		.069	.409	
사회경제	질병	건강상태(E1)	.090	.096
	여가시설	문화생활의 수준(G1_2)	.143	.147
	평생교육	지속적인 교육활동 수준(H1_8)	.108	.112
	고용	직장에 대한 전반적 만족수준(A17_12)	.861	.843
		직무내용에 대한 만족수준(A17_3)	.836	.849
		고용의 안정성에 만족수준(A17_2)	.736	.735
가계소득	현재의 수입에 대한 만족수준(I2_2)	.204	.213	
환경	정보인프라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다른 사람과 연락(G3_3)	.876	.140
		인터넷에서 물건 구입(G3_5)	.897	.120
		인터넷으로 각종 증명서 발급(G3_6)	.876	.158
	녹지 및 대기오염	거주지 주변환경의 수준(I2_4)	.106	.215
		근무지(일터) 근무환경(시설, 위생상태)의 수준(A17_4)	.148	.814

측정지표와 다른 방식으로 설계하여 구조화하여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행정의 경우 역시 세 가지 측정변수들이 대체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다만, 전체모형에서 복리후생제도<sup>12)</sup>만이 비교적 높은 적재치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이는 지방정부행정이 중요하게 정치·사회관계 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변수임을 나타낸 것이라 사료된다. 물론, 지방행정서비스의 만족수준이 부합도가 높지 않다는 점에서 커뮤니티웰빙의 하위측정요소로는 설명력이 낮을 수도 있는 변인으로 해석해볼 수도 있다.

둘째, 사회경제영역에서는 개별모형과 전체모형의 결과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경제영역 자체가 다른 변수들의 상호관계에 관련없이 강건한 지표로 커뮤니티웰빙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고용의 경우 개별모형과 전체모형 모두에서 매우 높은 적재치를 나타내고 있었다. 고용부분은 사회경제영역의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그것인 최상위인 커뮤니티웰빙에서 잘 부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커뮤니티웰빙에 대해 서울시민들은 사회경제영역 그 중에서도 고용영역에 대한 일치도가 가장 높으며, 이는 커뮤니티웰빙에 가장 적합한 지표임을 나타낸다. 다만, 커뮤니티웰빙 뿐만 아니라 행복지수, 복지지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지표가 질병인데(건강상태) 본 연구에서 서울시민들은 이에 대한 일치도가 높지 않았으며, 이는 회귀계수의 저하 및 적합도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질병 및 개인건강과 관련되어서는 많은 선행연구들이(이승중 외, 2013; 기영화 외, 2013) 복지의 기본요소로서 또는 커뮤니티웰빙의 요소 검증해왔다는 점에서 재검증이 필요하다. 즉, 질병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질병수준으로 다루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환경영역에서도 정치·사회관계영역처럼 개별모형과 전체모형의 결과가 상반되게 나타났다. 즉, 개별모형에서는 정보인프라가 환경의 많은 부분을 설명해주는 변수로(회귀계수) 확인되었으나, 전체에서는 녹지 및 대기오염이(특히, 근무지 환경수준) 환경의 상당부분을 설명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는 커뮤니티웰빙의 하위요소인 환경부분을 설명하는데 녹지 및 대기오염부분이 부합되지만, 오히려 일반적 환경영역에 대한 설명요소로는 정보인프라가 더 적합함을 나타낸다. 개별모형과 전체모형에서 다소 상반된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커뮤니티웰빙 개념과 환경영역, 그리고 개별측정지표 간에는 상호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질병의 경우 상대적 중요도에 비해서 본 연구에서의 적합성은 낮았다. 질병은 다른 변수에 비해 상당히 개인적이라는 측면에서 커뮤니티의 속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즉, 집합체에 대한 개념을 담아내고 있지 못하였다는 점에서(선행연구는 그와 같은 관점을 포함하였을 수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관점만이 포함되었음) 측정도구에 있어 차이가 있기에 나타난 오해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향후 연구에서 정밀한 측정

12) 사회적 지원에 포함되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서비스가 있어 이는 사회적 지원에 포함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제시한 복리후생제도는 공공부조의 형태로 제공하는 정부서비스를 의미한다. 이에 복리후생제도를 지방정부행정에 포함시켰다.

도구를 통해 재검증 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표 13〉 커뮤니티웰빙 지표에 대한 선행연구와 본 연구결과의 비교<sup>13)</sup>

영역	하위지표	선행연구(상대적중요도) <sup>14)</sup>				본 연구	
		전문가		공무원		시민	
		영역별	전체	영역별	전체	영역별	전체
정치관계	지역사회참여	4위	13위	4위	13위	2위	9위
	사회적지원	2위	8위	3위	12위	3위	10위
	지방정부행정	3위	11위	2위	11위	1위	4위
	안전	1위	4위	1위	4위	-	-
사회경제	가계소득	2위	2위	2위	2위	2위	3위
	고용	1위	1위	3위	3위	1위	1위
	평생교육	5위	10위	5위	9위	4위	7위
	여가시설	4위	9위	4위	7위	3위	5위
	질병	3위	3위	1위	1위	5위	8위
환경	녹지	1위	5위	1위	5위	1위	2위
	교통환경	2위	6위	2위	6위	-	-
	대기오염	4위	12위	4위	10위	-	-
	에너지보급율	3위	7위	3위	8위	-	-
	지역사회 기술인프라	-	-	-	-	2위	6위

넷째, 본 연구의 논점은 현재 서울시 시민들이 커뮤니티웰빙 지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 있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미래에 중요하게 다루어질 개념이나 또는 지역단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할 개념이 시민들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여 누락되거나 또는 간과되었을 수도 있다. 즉, 고차요인분석은 공변량을 기준으로 분석을 시도하게 되기에 적재치가 낮은 것은 생각의 일치성이 낮은 것이다. 이는 특정사건이나 시대적인 분위기에 의해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공동된 인식(6304명)에 기반한 바 측정된 표준화 회귀계수가 높은 문항들은 커뮤니티웰빙의 항목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를 공무원차원, 전문가차원으로 구분하여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에 논의했던 연구결과 비교한다면 몇 가지 시사점을 확인해볼 수 있다. 정치관계영역의 경우 사회적지원과 지방정부행정은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서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다. 사회적지원의 경우 선행연구의 공무

13) 분홍색 표시는 유사한 순위를 나타낸 지표를, 파란색 표시는 차이가 나타난 지표를 표시한 것이다.

14) 선행연구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다(이승중·기영화·김윤지·김남숙, 2013: 327-328). 일부만 발췌하여 구성한 것이기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승중 외(2013) 연구를 참조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원의 관점은 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았으며 본 연구에서도 적합도가 낮았다. 이에 반해 지방 정부행정의 역할에 대해서는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정치관계영역에서는 공무원과 시민간의 일치성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sup>15)</sup>. 다만, 지역사회참여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적합도가 높은 지표로 도출되었는데 반해 선행연구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사회경제영역은 가계소득, 고용, 평생교육, 여가시설에 대해 중요도 순위와 적합도 순위가 상당부분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회경제영역은 개별모형과 전체모형에서의 적합도 역시 유사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커뮤니티웰빙의 요소로서 진행된 선행연구 및 본 연구에서 가장 비중있는 하위영역 및 개념인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영역에서도 녹지 부분은 커뮤니티웰빙에서 중요성이 높고 적합도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V.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대두된 ‘커뮤니티웰빙’ 개념과 하위영역, 그리고 지표 간의 적합성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는 ‘커뮤니티웰빙’ 개념이 지역사회에서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 웰빙수준, 지역사회정책 등 다양한 관점들을 포괄하고 있어 개념과 지표간의 적합성 및 타당성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차요인분석을 통해 적합성이 높은 개념 및 지표, 상대적으로 낮은 개념 및 지표를 구분하고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비교검토를 시도하였다.

이렇게 진행된 연구결과 몇 가지의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정치·사회관계영역은 많은 변수들이 포함되었지만, 이 중 지방정부행정을 제외하고는 적합도 정도가 낮고 전체 다른 변인과 비교할 때도 낮은 순위(지역사회참여-9위; 사회적지원-10위)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커뮤니티웰빙에 있어서 지방행정서비스(전체 4위)는 적합도가 높은 변인임을 의미한다. 물론, 선행연구에서 공무원 및 전문가(전체 11위)는 낮은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지만,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지방행정서비스가 커뮤니티웰빙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척도임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사회경제영역은 개별모형과 전체모형 모두에서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이는 커뮤니티웰빙 척도로 시민이 판단할 때 가장 적합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대상자들이 2010년을 기점으로 응답한 결과이기에 여전히 많은 검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허나, 선행연구에서 수행한 중요도의 결과에서 가계소득, 고용, 평생교육이 높은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었고, 본 연구결과도 이 변수들이 적합성이 높다고 나타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가계소득 및 고용과 같은 경제지표는 여전히 커뮤니티웰빙에 중요한 변수이며, 교육의 여건 역시 사람들이 커뮤니티웰빙의 측

15) 물론, 본 연구에서 안전지표가 다루어지지 않았기에 이것이 포함되었을 때 변동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정지표로 적합하다고 인지하고 있음을 판단해볼 수 있다.

셋째, 환경영역은 선행연구의 물리적 환경(교통, 대기오염, 에너지 보급률 등)을 포함하지 못하여 적합한 비교가 수행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녹지에 있어서는 선행연구의 중요도와 본 연구의 적합도 모두에서 매우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커뮤니티웰빙이 지역사회나 거주민의 주변환경이 사람들의 심리나 안정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의 결과는 분명 녹지가 환경영역의 중요변수이면서 동시에 커뮤니티웰빙의 적합도가 높은 변인임을 시사한다.

넷째, 전체모형의 분석결과는 환경영역, 정치·사회관계영역, 사회경제영역 모두가 균등한 설명요소임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가 개념화한 커뮤니티웰빙의 개념이 매우 적절하게 구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커뮤니티웰빙은 이론적 검토를 통해 논의하였듯 각 부분 중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거나 편중됨이 없어야 한다. 많은 국제기구들(OECD, UN 등)이 웰빙을 측정해서 그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개인의 의료 및 복지서비스와 같은 요소에 편중되어 측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국내의 많은 지자체들 역시 지자체 내의 복지수준이나 의료수준을 가지고 지자체 웰빙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처럼 개인의 웰빙은 개인을 넘어서 집합체 수준의 웰빙이 같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는 선행연구 및 본 연구에서 구분한 3가지 내지는 4가지 영역과 같이 크게 구분되고 하위수준 역시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는 선에서 지표가 마련되고 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행된 연구는 전문가와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상대적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였으며, 특히 각 지표들이 해당 개념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AHP를 통해서 검증되기 어려울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가 새로운 개념과 지표를 도출하는 작업은 아닐지라도 실증적으로 지표를 테스트함으로써 선행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다듬어 내고 있을 개념과 지표의 관계성에 충분한 실증적 자료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러한 노력이 본 연구가 지닌 학술적 가치로서 의의가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상기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부분들이 존재한다. 첫째, 측정도구의 문제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서 구분한 개념과 지표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이때 해당 지표에 맞는 측정항목을 서울시 복지패널자료에 포함된 변수들과 매칭하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더 적합한 지표분석을 위해서는 개념과 지표를 구분한 연구진이 측정항목을 구축하고 수행한 후 그 지표를 분석할 때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sup>16)</sup>. 아울러, 분석의 일관성을 위해서 객관적 지

16) 본 연구의 자료는 서울시복지패널자료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서울시복지패널은 주로, 저소득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특성에서 보여지듯 약 56%이상 고등학교 이하이고, 비취업자는 58%를 넘고 있으며, 자료의 많은 부분이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자료일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 전체를 대표하는 자료로 활용되기 어렵다는 내생적 한계가 존재한다. 다만, 저소득층이 웰빙에 있어서 가장 직간접적으로 느끼기 어려운 집단이며, 웰빙에 접근하는 가장 우선적인 집단일 수 있다는 점에서 웰빙의 기초평가 또는 시론적 연구자료로써 활용해보고자 하였다. 이후에는 대표적인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적

표(예: 에너지 보급률)를 제외하고 만족도에 의존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제시되었던 지표를 설문으로 구성한 후 자료를 모아 분석을 시도함과 동시에 이승종 외(2013)가 제시하였던 객관적 지표를 동일선에서 분석에 포함시키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 둘째, 측정지표들의 적합도가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 역시 지표가 적합하게 구현되지 못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결과로 유추된다. 향후 적합한 측정도구를 통해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합도 수준도 높아질 것이라 기대한다. 셋째, 커뮤니티웰빙의 지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낮은 수준의 커뮤니티를 가정하고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론적으로 커뮤니티의 수준은 지역 모임이나 지역 단체활동 등으로 한정될 수 있겠으나, 연구의 수준에서는 행정구역을 포함시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서울시는 매우 큰 단위이며, 이 보다는 자치구 단위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때 더 적합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보인다. 물론, 동단위와 같은 더 낮은 수준이 적합할 수 있으나, 객관적 지표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자료구축이 수월한 자치구 단위가 적절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자치구 수준에서 측정지표들을 논의하고 비교하면서 결과를 이끌어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새로운 지표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기존연구와 비교하려는 시도가 부족하였다는 점이다. 연구의 개념을 선행연구에 의존하지 않고, 본 연구의 틀에 맞는 정의를 통해 지표개발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더 발전적인 연구가 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활용한 선행연구의 개념과 지표는 시기적 적절성과 잘 다듬어진 내용들이고, 오히려 이들에 대해 충분한 실증적·경험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커뮤니티웰빙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각기 다른 정의와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연구의 독창성과 차별성을 부각할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개념의 명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는데는 독(毒)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처럼 해당지표 자체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연구의 연속성을 위해서 또는 명확성을 위해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향후 연구를 수행할 때는 본 연구가 분석단위가 서울시 전체였지만, 자치구 수준에서 연구를 병행하여 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해보기를 권한다.

## 참고 문헌

- 기영화·김승현·김남숙. (2013). 성미산 지역공동체 커뮤니티웰빙의 패러다임 모형분석: Strauss와 Corbin의 근거이론. 한국행정학보, 47(1): 295-320.
- 기영화·김윤지·김남숙. (2013). 커뮤니티웰빙 연구를 위한 국제지표 분석: 한국적 함의의 도출. 지역발전연구, 22(1): 1-35.

---

절할 것이다.

- 김계수. (2007). Amos 16.0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한나래.
- 김종기·김진성. (2011).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보화정책, 18(3): 25-49.
- 박도영. (2006). 학습자특성에 대한 고차 확인적 요인분석. 교육평가연구, 19(1): 285-304.
- 배귀희. (2011). 사회적 기업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 개념 구성에 관한 연구: 구조방정식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5(2): 1999-227.
- 서재호·김혜정·이승중. (2012). 지방정부의 가치지향으로서 커뮤니티 웰빙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6(1): 33-56.
- 이배영·전진석. (2009). 지식관리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 75-98.
- 이승중·기영화·김윤지·김남숙. (2013). 커뮤니티웰빙 지표에 대한 공무원과 전문가의 평가비교연구: AHP 기법의 적용. 한국행정학보, 47(2): 313-337.
- 이홍재·차용진. (2008).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추진 평가모형에 대한 고찰: 모형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토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8(4): 69-92.
- Campbell, A. (1974). Quality of life is a Psychological Phenomenon. in B. Strumpel (ed). Subjective Elements of Well-Being, 9-19. OECD.
- Chanan, G. (2002). Measures of Community: A Study for the Active Community Unit and Research, Development and Statistics Unit of the Home Office. London: Development and Statistics Unit of the Home Office.
- Christakopoulou, S. Dawson, J., & Gari, A. (2001). The Community Well-being Questionnaire: Theoretical Context and Initial Assessment of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Social Indicators Research, 56: 321-351.
- Cuthill, M. (2002). Coolangatta: A portrait of Community Well-being. Urban Policy and Research. 20(2): 187-203.
- Hartnagel, T. F. (1979). The perception and fear of crime: Implications for neighborhood cohesion, social activity, and community affect. Social Forces, 58(1): 176-193.
- Kruger, P. Stefan. (2010). Wellbeing-The Five Essential Elements. Applied Research Quality Life, 6(3): 325-328.
- Kusel, J. (1991). Well-being in Forest-dependant Communities. CA: Forest and Rangeland Resources Assessment Program and California Department of Forestry and Fire Protection. Berkely.
- Murphy, B. L., & Kuhn, R. G. (2006). Community: Defining the Concept and its Implications: Report completed for the Canadian Nuclear Waste Management Organisation, Toronto. [http://www.nwmo.ca/community\\_wellbeing](http://www.nwmo.ca/community_wellbeing). Nuclear Waste Management Organization.

- Ramsey, D. & Smit, B. (2002). Rural Community Well-being: Models and Application to Changes in the Tobaccobelt in Ontario. Canada. *Geoforum*, 33: 367-384.
- Scottish Development Center. (2007). Developing Social Prescribing and Community Referrals for Mental Health in Scotland. Healthier Scotland Scottish Government.
- Sirgy, M. J., & Cornwell, T. (2001). Further validation of the Sirgy et al.'s measure of community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56(12): 5-143.
- Sirgy, M. J., Rahtz, D. R., Cicic, M., & Underwood, R. (2000). A method for assessing residents' satisfaction with community-based services: a quality-of-life perspective. *Social Indicators Research*, 49(3): 279-316.
- White, S. C. (2008). But What is Wellbeing? A framework for Analysis in Social and Development Policy and Practice. Centre for Development Studies.
- Whorton, J. W., & Moore, A. B. (1984). Summative scales for measuring community satisfac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15(3): 297-307.
- Wiseman, J. (2008). Community Wellbeing in and Unwell World: Trends, Challenges, and Possibilities.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 Wilson, B. & Henseler, J. (2007). Modeling reflective higher-order constructs using three approaches with PLS path modeling: A monte carlo comparison. Paper presented at the Australian and New Zealand Marketing Academy Conference 2007.

[부록]

<부록 1> 측정지표들의 기술통계

요인	관측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사회 경제 영역	현재의 수입에 대한 만족수준(I2_2)	6304	3.583	1.331	1	5
	고용의 안정성에 만족수준(A17_2)	6304	2.800	0.844	1	5
	직무내용에 대한 만족수준(A17_3)	6304	2.641	0.747	1	5
	직장에 대한 전반적 만족수준(A17_12)	6304	2.727	0.728	1	5
	지속적인 교육활동 수준(H1_8)	6304	4.512	0.768	1	5
	문화생활의 수준(G1_2)	6304	4.580	0.693	1	5
	건강상태(E1)	6304	2.548	1.054	1	5
환경 영역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다른 사람과 연락(G3_3)	6304	2.386	1.069	1	5
	인터넷에서 물건 구입(G3_5)	6304	2.478	1.132	1	5
	인터넷으로 각종 증명서 발급(G3_6)	6304	2.751	1.196	1	5
	거주지 주변환경의 수준(I2_4)	6304	2.709	0.795	1	5
	근무지(일터) 근무환경(시설, 위생상태)의 수준(A17_4)	6304	2.727	0.759	1	5
정치 관계 영역	시민단체 참여(직업과 관련 無)(H1_6)	6304	4.477	0.761	1	5
	거주지역모임의 참여정도(H1_9)	6304	4.495	0.808	1	5
	정치단체의 참여정도(H1_10)	6304	4.604	0.665	1	5
	지역사회에서 기회의 평등 수준(I7_15)	6304	3.131	0.806	1	5
	지역사회에서 공정한 보상 수준(I7_16)	6304	3.084	0.818	1	5
	지방행정서비스의 만족수준(H19_14)	6304	3.108	0.774	1	5
	직업훈련효용성(C1_3)	6304	2.384	0.966	1	5
	복리후생제도(사회보험 및 부가급부)(A17_8)	6304	3.481	1.397	1	2

## Analysis on Conceptions and Indicators of Community Wellbeing Via Panel Data of Seoul City

Seo, Inseok, Lee, Seungjong, & Kee, Youngwha

This research about among the indicators that constitute the conception of community well-being (CWB). The notion of CWB in this study is operationally defined with the three subordinate conceptual domains and the concrete indicators that amount to each domain. Upon the employment of the higher-order factors analysis, the result shows: 1) The local government and administrative services have the highest goodness-of-fit measure; 2) related to household income and jobs play(s) a key role in explaining community wellbeing; 3) The of green space displays the third highest goodness-of-fit measure. This suggests that green space is significant in; and 4) Lastly, in the current model the three domains—the environmental domain, the social-political domain, the economic domain—contribute equally to the conception of community wellbeing. Whereas many international agencies such as OCED and UN put a heavy emphasis on medical and social well-fare services in the measurement of wellbeing, the further efforts to be made environment domain and local administrative services.

[Key Words: Indicators of community wellbeing, Highe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Goodness-of-fit measure]